

백원국 차관, “항공기 정비는 안전과 직결, 한치의 소홀도 없어야”

- 9일 인천공항 MRO현장 찾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6일(수) 인천공항 항공MRO* 현장을 찾아 항공기 정비현황과 화물기 개조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항공기 정비와 협력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 항공MRO: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활동

- 백 차관은 대한항공과 샤프테크닉스K의 항공기 정비현장을 점검하면서 “항공기 정비는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업무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허용 등으로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운항 증가에 대비하여 정비인력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화물기 개조·정비사업, 엔진정비사업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수행하던 정비물량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수출 전략사업”이며,

* IAI 화물기 개조: 정비시설 착공('23.下), 운영('25.上) 예정 ⇒ 연간 1천억원 매출
아틀라스항공 정비: 정비시설 착공('24.上), 운영('26.上) 예정 ⇒ 연간 2.4천억원 매출
대한항공 엔진정비: 정비공장 확장('23.9 착공, '26.上 운영) & 해외물량 수주(연간 5천억원)

- 아울러, 관련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함에 따라 국내 제작산업과의 동반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스라엘 IAI사와 국내 제작업체간 개조부품 조달 계약(520억원) 체결('22.9)

- 아울러, 정부도 “이번 사업들과 관련하여 정비시설 인허가,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MRO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 9. 6.

국토교통부 대변인